

룻기에 담긴 영적 보화들 - 룻기

룻기 1:1-5, 마태복음 1:1-11

정운돈 목사님

요약

서론 : 신자의 과제 두 가지(구원의 확신과 그리스도인의 삶) - 룻기에 해답이 있음

1. 룻기의 전체 내용 : 룻과 보이스의 만남 - 그리스도께서 그 후손으로 오심
2. 룻기의 용어와 배경 : 모압의 역사와 문화, 형사취주제, 기업 무를 자 제도의 이해
3. 룻기 속에서 발견할 영적 보화 : 언약의 축복, 복음적인 삶, 선교의 중요성

결론 : 실천해야 할 미션 - 룻기 읽기, 룻기 속의 복음적인 삶 실천, 선교 실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개인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력, 지력, 인력을 천만 배나 허락하여 주셔서, 민족과 지역과 세계를 살릴 40만 제자, 1천만 제자를 양육해 나가는 데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증거되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판에 아로새겨지고 각인되도록, 나에게 주어지는, 나를 치유하는 메시지, 나를 거둬들여 주는 메시지, 나의 미래와 발견을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모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실현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론 :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 과제가 있다.

오늘은 룻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언약의 메시지를 발견하고자 한다. 나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의 큰 과제가 있다. 평생 우리가 이뤄나가야 할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을 발견했다.

(1) 그 중 한 가지는, 구원의 확신의 문제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지금 바로 돌아가서도 천국에 가실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눈을 맞추고 췌려보면서 “진짜요?” 하면 한 두 분 정도는 고개를 숙이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 (웃음) 여러분, 컴퓨터를 아는가? 다 알 것이다. 그러나 빌 게이츠처럼 컴퓨터를 아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는가? 그러나 역사가 일어난 인물들이 깨달은 구원과는 다르다. 그냥, ‘구원 받았습니다’ 하는 것과 다르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는가?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신 것을 믿으시는가? 어떤 사람은 특이한 게,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신 것은 믿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은 못 믿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다 수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세계를 움직일 만한 복음, 그런 말씀을 깨닫는 수준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조금 마음이 아픈 이야기지만, 내게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겨우 구원만 받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겨우 컴퓨터를 켜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컴퓨터 속에 있는 많은 응답은 못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다니엘, 에스더, 요셉, 사도 바울, 디모데는 세계를 살리는 엄청난 응답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이 안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얼마나 복음을 이해했느냐, 얼마나 그것이 나의 것이 되었느냐 하는 차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왜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 이는 만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그 날, 그 때를 향하여 우리는 메시지를 읽고 성경을 읽고 훈련을 받으며 예배에 집중해야 되겠다. 어떤 청년이 그런 말을 했다. “목사님,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응답이 안 오죠?” “몇 년 다녔지?” “3년이요.” 내가 그래서 대답했다. 변함없이 40년 만 믿어 봐라. 40년 만 변함없이 주일성수하고 수요일에 안 빠져 봐라. 여러분은 역사에 남는 명문가가 될 것이다. 내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다. “3년 동안 주일 몇 번 빠졌어?” 많이 빠졌었다. “수요일에는 몇 번 나왔어?” 한 번도 안 나왔다. “금요일기도회는?” 친구 만나려고 몇 번 나왔다. “그 정도 믿어서 응답받을 거라고 생각했냐. 40년 만, 어떤 문제가 와도 변함 없이, 정확하게 믿어 봐라. 너희 가문에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는가? 너무 세상 것에 비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몇 번째 우선순위인가? 이 결과에 따라서 응답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 부담가질 것은 없다. 조금만 믿어도 응답이 크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죄는 너무 많지만 벌은 너무 적고, 하는 일은 너무 적는데 응답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크다. 그 은혜에 감사하니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아시느냐? 성경은 2,300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 불경의 번역은 40개 언어일 뿐이다. 성경을 자기 언어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지구의 95%가 넘는다. 어떤 책도 2,300개 언어로 번역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이 25,000개가 있는데, 그 중 한 가지도 성경과 위배되는 것이 없다.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질수록 성경이 완전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다. 인간의 모든 과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내가 만일, “성경대로 살면 과학도 발전할 것이다. 경제도 발전할 것이다. 정치도 성장할 것이다. GDP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믿는 사

람들은 수용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라. 성경대로 살아갈 때 과학도 발전되어 왔다.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교육제도를 만들었고, 모든 정치를 발전시켰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에 의해서 경제가 발전되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나라가 정말 축복을 받으려면 성경 중심, 믿음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다.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겨우 구원받는 수준이면 안 된다. 진정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한다면,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다.

(2)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과제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고된이다. 나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중요한 해답을 룻기를 통해서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여러분이 이런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를 축원한다.

1. 룻기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자.

(1) 룻기 1장 : 룻기 1:1을 보면, 그 시대가 언제인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다. 다윗이 3천 년 전 사람이다. 사사시대가 350년 정도 유지되었다. 그러면 적게 잡아도 3,300년 전의 이야기이다. 여러분, 2,500년 전만 해도 한반도에는 역사가 없다. 중국에도 역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도 3천 년이 되지 않았다. 예수님보다 석가모니가 500년 앞서나가 석가가 훌륭하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솔로몬, 다윗은 석가보다 500년 전의 사람이다. 석가가 말하는 허무주의를 솔로몬은 500년 전에 이미 말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을 석가가 나중에 전해들었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다. 그보다 천 년 전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4,500년이 흘렀다고 생각하고 평균 인구성장률에 의해 계산해 보면, 노아의 가족 8명이 정확하게 지금 인구가 증가하게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점점 믿게 되는데, 신학자들은 점점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한다. 과학과 자연을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데, 신학자들은 새로운 것을 찾겠다고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안 믿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 과학을 뛰어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한다.

이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부인 나오미를 데리고 모압으로 갔다. 거기에서 엘리멜렉은 죽게 되었다.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은 다 모압 여인과 결혼했는데, 10년 만에 두 아들도 다 죽게 된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이 고향 땅인데, 왜 모압으로 왔나? 흉년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서 다 죽게 되었는데, 그때는 여자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든 시대였다. 그런 상황에서 고향 땅은 경제가 회복되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한다. 그러면서 두 며느리에게, 모압에 남으라고 강권했는데, 한 사람은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말한다.

(2) 룻기 2장 : 그래서 룻이 나오미와 함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먹고 살 길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룻2장에 보면, 이삭을 주워서 연명했다. 어머니는 나이가 많아서 이삭 주을 건강도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며느리가 가서 다 주운 것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것이다. 트랙터로 다 걷어가는 시대니까. 나는 군대에 가서 처음으로 낫질을 해 봤다. 벼를 세우고 낫질을 해 보니까 벼가 떨어지는 게 나온다. 지금은 트랙터로 다 묶어서 추수하게 되니까 다 자동으로 묶여서 나오고, 한 톨도 안 남는다. 룻이 지금 있었으면 굶어죽었을 것이다. (웃음) 그때는 낫으로 다 할 때였다. 나는 겨우 다섯 주를 잡아서 잘라내는데, 시골 출신 친구는 한 움큼씩 묶어서 다 썰더라. 우리 네 명 하는 것이 이 친구 한 명 하는 것보다 못 했다. (웃음) 우리는 다 남기고 떨어뜨리고 그랬는데, 그 시대에 그렇게 남는 게 있었다. 이것을 본 보이스는 남자가 룻을 도와주게 된다. 이삭을 일부러 더 떨어뜨리고 남기도록 해서 룻이 가져가서 배불리 먹게 한 것이다. 룻이 물어본다. “왜 나를 도와주십니까?” 룻2:11에 대답한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한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이스는 굉장히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었고, 정보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성공적인 사람은 사소한 것에도 관심을 다 기울인다. 성공적인 산업인이고 중직자였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이웃을 배려할 수 있는 부자가 보이스였다. 성령인도를 받은 인물이었다. 그러면 보이스의 어머니는 누구일까? 기생 라합이다. 이 사람도 이방 여인 아닌가. 그러니까 모압에서 온 룻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

(3) 룻기 3장 : 룻3:1에, 나오미는 룻에게 보이스의 발 끝에 눕도록 시켰다. 보이스는 이런 일의 의미를 알았다. 당시의 전통은, 남편이 사망하면 그 부인을 가까운 친척부터 보호해 줄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당시에 룻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진 친척들이 그 책임을 안 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먼 친척이었던 보이스가 룻을 보호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을 나오미가 했던 것이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룻이 한 것이다. 보이스는 하지만, 젊은 여자가 발 끝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정욕을 채우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깨끗한 사람이었다. 이 사건의 의미를 알고 룻을 보호해준 후, 다음 날 나오미의 기업 무를 자를 찾아간다. “내가 룻을 보호해서 기업을 무를 책임이 있지만, 그것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 책임을 내게 넘겨라.” 그래서 신발을 벗어 줌으로써 보이스에게 그 책임을 넘겨 주었다. 이렇게 해서 보이스가 정식으로 룻과 결혼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다. 형이 사망하면 형수를 동생이 취하는 것이다. 그때의 전통은 지금과 다른데, 당시의 역사적 배경이 있다. 광야 시대에는 성막이 있었지만 지금은 곳곳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시대마다 문화가 다르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문화를 다 사용하셔서 역사하셨다. 당시에는, 만약에 형에게 땅이나 재산, 짐승이 있는데, 형이 죽고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형수가 그 재산

을 다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져나 할 것 아닌가? 그러면 그 가문의 재산이 다른 가문에게로 넘어가게 된다. 그런데 그 시대는 가문 전체의 재산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을 때였다. 그래서 동생이 형수를 대신 책임지면서 가문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룯의 경우에는, 넘겨받을 재산이 아무 것도 없었다. 나오미의 남편도 아들도 다 죽었다. 아마 빚을 내고 모압 갔을 수도 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 빚까지 다 떠맡는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니까 기업 무를 자의 입장에서는, 나오미와 룯을 받아들여봤자 책임만 지지, 이익 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 책임을 그래서 보이스가 넘겨받아서 지게 되는 것이다. '기업'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고엘'이 된다는 것은, 재산과 책임과 빚과 의무를 다 떠맡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도 우리의 빚을 책임져주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빚과 고난, 죄를 다 떠맡아 주셨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보이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육신적으로 보이스는 예수님의 조상인 동시에,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상징이신 것이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룯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

(4) 룯기 4장 : 4장에서는 룯이 합법적으로 보이스와 부부가 된 후, 그 자손 중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것을 설명한다. 룯은 사사시대 초기에 살았던 인물로 보이는데, 보이스가 라합의 아들이라는 점을 보면 쉽게 이해된다. 그런데 룯의 자손 중에서 다윗이 나왔음을 기록했으니까, 이것은 후대에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언약을 정리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후대의 제자들이 정리한 것이 룯기라고 할 수 있겠다.

2. 룯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용어와 배경이 있다.

(1) 모압이라는 민족과 지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룯이 아브라함을 떠나 선택한 땅이다. 모압은 원래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 굉장히 기름진 땅이었었는데 우상숭배가 이미 당시에 심각했고, 성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시켜 버렸다.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를 못 찾다가 최근에 고고학적 발굴로 찾아냈는데, 사해 바닥에 있었다. 수천 년 전 도시들이다. 성경 말씀 그대로였다. 이렇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룯은 가족들과 겨우 재산을 피했는데, 룯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고 동침해서 낳은 아들의 자손이 모압이었다. 근친상간의 결과다. 일본에는 지금도 4촌 간에 결혼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말도 팔촌 안으로는 다 알아듣는다는데, 말보다 못하지 않나 싶기도 하다. (웃음) 쉽게 말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문화에서 생긴 민족이 모압 민족이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 땅으로 간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흉년이 들고 힘들다 해서, 가지 말아야 할 땅으로 갔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이다. 흉년이 들어도, 그 땅이 힘든 곳이어도, 유대 땅 베들레헴은 언약의 땅이다. 조상 적부터 내려온 그 땅이다. 메시아야 보낼 그 땅이다. 그런데 너무 힘들니까 잠시 갔다 와야겠다 하는 것이다. 지금도, '지금 좀 힘들니까 예배는 잠시 쉬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엘리멜렉은 이렇게 했다가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현명한 나오미가 이것을 보고 제대로 깨달았다.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메시아야 보내실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엘리멜렉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외국인 며느리를 통해서 언약을 회복시키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후대를 언약의 땅, 믿음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한다.

(2) 나오미는 '나에게는 너희의 남편 될 아들이 없다'고 말한다(룯1:11). 그 당시에는 형사취수혼(兄弟取妻)이라는 것이 있었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받아들이는 결혼을 한 것이다. 그런 문화가 있는데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한 것은, 며느리들에게 자신을 봉양하려고 애쓰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서 재혼해서 살라고 허락한 것을 의미한다. 며느리들의 미래를 배려하여 보내려고 한 것이다. 이것이 복음적인 마음이다. 자기 이익을 챙기려 하지 않고, 복음적인 자세로 며느리들을 도와주었다. 정확한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어야만 한다. 그래서 신천지의 이만회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아니니까. 석가모니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못 된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보이스의 후손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자의 후손이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면서, 죽으셨다가 사흘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란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당시에 많았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써,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것이다.

(3) '기업 무를 자'는 어떤 의미인가? 구약학자 손석태 교수는 이것을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적절하지 못한 번역이라고 지적했다. 무른다는 말도 용법이 많고, 기업이라는 것도 의미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후손을 이어갈 의무가 있는 사람, 돈을 주고 의무를 산 사람, 가문을 이어갈 의무가 있는 자, 생계를 책임져야 할 친척이다. 보호할 의무와 권한과 책임을 이어받은 친척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3. 룯기 속에 담긴 믿음의 세 가지 보화를 기억하라.

(1) 첫 번째 보화는 언약의 족보다. 우리는 룯기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世系, 족보)'라고 했다. 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보이스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이신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 명확한 그리스도를 룯기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2) 두 번째 보화는 복음적인 삶에 대한 것이다.

① 나오미의 모습과 선택, 나오미의 신앙을 목상해 보라.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다.

② 룯의 모습을 목상해 보라. 아마 이 땅에서 가장 어려운 관계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들 때의 관계일 것이다. 그런데 룯은 딸보다, 자녀보다, 남편보다 시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깊은 인간관계를 보여주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의 인간관계의 모델이 바로 나오미와 룯의 관계다. 고부관계 뿐 아니라 형제관계도, 성도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렇다면 나오미와 룯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한다.

③ 또 한 명이 나온다. 보이스는 깨끗한 중직자였다. 생각해 보라. 젊은 여인이 밤에 와서 발치에 누워 있다. 늑대같은 남자라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겁탈했을 지도 모른다. 그런데 보이스는 그런 더러운 남자가 아니었다. 멋있는 신사였다. 절친을 다 뺀 가면서 그 책임을 진 나실인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우리 모든 남자들이 이런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축원한다. 지저분한 삶을 살지 마라. 여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 룯이 잘 생긴 남자를 선택하려고 하지 않았다. 시집을 또 가려고 한 것이 아니다. 너무 정숙한 여인이었다. 타락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모압에서 왔지만, 룯의 모습은 너무 달랐다. 함부로 남자를 선택하지 않았다. 음란에 빠지지 않았다. 자신의 책임을 끝까지 감당한 여인이었다. 하나님이 그래서 룯을 재혼시켜 주셨다. 우리가 선택을 잘못 하면 안 된다. 우리의 중심을 지키고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면 좋은 결혼대상을 만나게 된다.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당연히 갖춰야 할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남자는 여자는 정확한 응답을 받게 된다. 그렇게 결혼해야 한다. 그렇게 가정생활을 이어가야 한다.

(3) 세 번째 발견할 수 있는 보화는 선교다. 모압 족속인 룯은, 선교 현장에서 찾아낸 절대 제자였다. 우상문화, 음란 문화의 현장에서 찾아낸 나실인과 같은 예비된 문, 다문화 현장을 살릴 절대 제자였던 것이다. 기생 라합, 또 룯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다. 예수님의 족보 속에도 이 비밀이 들어있다.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하셨다. 지난주에 오키나와에 가서, 한국, 일본, 태국, 대만에 있는 의료재단을 경영하는 분들의 총회에 참여했다. 기독교 종합병원 이사장, 병원장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4개국에서 모였는데, 세미나를 꼭 하는데, 나는 오랜만에 영어로 고문을 당했다. 일본에서 모이는데 토너 순서가 영어로 진행되었다. 그래도 너무 멋있었다. 실력도 있고 영어도 잘 하고 병원 사역도 잘 하고, 대만에서 온 분은 자기 병원의 병상이 4천 개가 있다고 했다. 오키나와에서 오신 분도, 예수를 본, 4대 믿으니까 가장 훌륭한 병원을 경영하는 축복을 받았다. 포항 선린병원, 전주 예수병원,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도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나는 그 모습 속에서 선교를 다시 한 번 보게 되었고, 우리 후대들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할 것인지 언약을 잡게 되었다. 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운 병원들이었다.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현대적인 병원을 세워서 지금까지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고 있다. 이들이 모여서 사명을 다시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큰 희망을 보았다. 우리 후대들이 다 이 축복을 받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선교를 원하신다.

결론 : 룯기 속에서 누려야 할 미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미션을 드린다.

(1) 첫째, 룯기를 다시 한 번 자세히 읽어보라. 나는 룯기를 읽고 목상하면서 생각했다. 평생 룯기만 읽고 실천해도 신앙생활에 부족함이 없겠다는 것이다. 4장 분량의 짧은 성경이지만,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다 담겨 있었다. 보이스의 어머니가 라합, 그 아내가 룯 아닌가? 그 후손 중에서 다윗이 태어난 것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는 하나님의 흐름을 우리는 볼 수 있다.

(2) 둘째, 룯기 속에 있는 미션을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보라.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나오미처럼, 보이스처럼, 룯처럼 시작해 보시기 바란다. 고베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응답받는지 모른다. 내가 선교사님께 소개를 받고 만난 분인데, 이분은 고베에 빌딩이 78개나 있다. 폴로 이스 자가용이 세 대나 있다. 선교사님이 빌려달라 말만 하면 빌려주는데, 선교사님이 타고 다녔다가 기름 값이 엄청 들어서 손해를 봤다고 한다. (웃음) 그래서 이제는 열쇠와 카드를 같이 빌려주신다는 것이다. (웃음) 이분은 은행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사업 면담을 하려고 해도 먼저 한 시간 동안 설교를 한다고 한다. 이렇게 우리 램넛들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고베에 가면 할머니가 그려져 있는 빌딩이 다 이분의 빌딩이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전도에 올인 하고 있다. 이런 보이스같은 인물이 다 되시고, 후대들 중에 이런 인물들이 나오기를 축원한다.

(3) 마지막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도록 기도하면서, 나의 선교국가, 분야, 현장을 목상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을 발견하라. 그래서 나오미, 보이스, 룯과 같은 응답을 여러분이 다 받게 되시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룯기를 통해서 중요한 언약적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려, 많은 영적인 열매, 진도의 열매, 삶의 열매가 넘쳐나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 교회가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지역, 민족, 세계를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